

산업보건 주요뉴스

2015년 국제산업보건대회, 온라인 등록시스템 오픈

9월 30일까지 등록 시, 40% 할인 혜택

안전보건공단(이사장 백헌기)은 2015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오픈했다고 밝혔다.

국제산업보건대회 참가 등록은 국제산업보건위원회(ICOH) 회원 여부에 따라 일반 참가자와 만 36세 미만 참가자 카테고리 나뉘며 조기등록 기간인 9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, 최대 40%까지 등록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국제산업보건대회는 3년 주기로 열리는 산업보건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 학술회의로,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에는 ILO, WHO 등 국제기구와 국가기관, 학계, 기업, NGO, 언론인 등 120여 개국 3,5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.

내년 제31회 대회는 세계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이끌어가는 석학들의 기조연설과, 분야별 전문가 33명의 세미 기조연설, 세계 각국 800여 명 관계자의 토론, 학생들이 참여하는 포스터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.

백헌기 이사장은 “지구촌 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,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는 물론 근로자와 사업주, 학생 등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”고 강조하며, “내년 서울대회가 전 세계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, 정보공유를 통해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”고 밝혔다.

한편, 국제산업보건대회는 1906년 이태리 밀라노에서 제1회 대회가 개최된 이후, 유럽에서만 20회가 개최되었으며, 북미 지역에서 4회,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개최한다.

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3개부처와 17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함께 나선다!

교육부(황우여 장관)·산업통상자원부(윤상직 장관)·고용노동부(이기권 장관)는 8월 22일 오후 2시, 반도체산업협회(판교)에서 『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(SC: Sector Council) 역량 제고 및 기능강화 방안』을 발표하고, 반도체산업협회(김기남 삼성전자 사장), 소프트산업협회(조현정 비트 컴퓨터 대표), IT비즈니스 진흥협회(박인식 SKT 총괄사장) 등 17개 업종별 협·단체, 산업기술진흥원(정재훈 원장), 산업인력공단(박영범 이사장), 직업능력개발원(강일규 원장 직무대행) 등 3개 유관기관과 『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역량 강화 및 기능 확대를 위한 민·관 공동 협약(MOU)』을 체결하였다.

< 기능강화방안 주요 내용 >

검토 배경

- 일자리 창출과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를 위한 인력지원 사업의 성패여부는 체계적인 산업계 수요 반영과 산업계의 주도적 참여가 관건
- 2004년부터 수요자 중심의 인력지원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해 『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(SC: Sector Council)』를 설치·운영 중이나 SC 역량이 아직 취약하여 산업구조 및 산업별 인력수요 변화에 부응한 인력양성·공급시스템 구축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
- 특히, 최근 제조업과 IT·서비스 융합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 수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 필요

추진 내용

- ① 정부 공동의 인프라로서 SC 활용·범부처 차원의 SC육성
 - 산업별로 기업과의 접점을 보유한 SC를 정부부처 공동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, 정부내 SC 공동운영위 운영
 - SC는 공동위에 산업별 인력수급 조사·분석 결과를 제시하고, 이에 기반한 산업별 인력 사업 정책 및 신규인력사업 등을 제안
 - 공동위는 SC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SC의 역량강화 및 성장이 가능토록 SC의 인력양성사업 추진 지원
- ② SC 구조 개편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역량 강화
 - 공동운영위를 통해 인적자원개발 역량, 업종 대표성 등을 감안한 SC 신규 지정 및 성과평가를 통한 부진 SC의 사업 구조조정 추진
 - 지속적으로 산업 구조 변화를 분석하여 신산업 업종 SC 신설, 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SC간 연계(예: 자동차-SW) 유도
 - SC 사무국 역량강화를 강화를 위해 협·단체 내에 SC 전담센터 설치, 사무국 전담 직원

훈련 프로그램 개설 등 추진

- SC에 자격 설계·과정평가형 자격 평가수행 기능 부여 → 능력중심사회 구현 주도
- 업종별 전담 SC를 지정,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의 개발·보완 권한 부여
- 능력이 입증된 SC에 과정평가형 자격 등의 설계·평가수행 기능 부여
- SC 협의체 구성·운영 등을 통해 SC가 직무능력에 기반한 인력양성, 채용, 승진·보상 체제 등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주도

④ 지역단위까지 SC의 전문성을 활용, SC의 지역인적자원개발 기여 확대

- 지역단위 사업에 있어 SC는 정책(인력지원방안수립 등)·RC(지역협의체)는 사업(지역사업 총괄, 교육훈련, 취업연계 등) 중심으로 역할 분담
- 산단 중심의 RSC 시범사업(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) 등을 통해 SC와 RC간 유기적 결합을 통한 지역단위 인력 양성의 모범사례 창출

기대효과

- 역량 강화를 통해 인력수급 분석, 인력사업 기획 등 본연의 기능 확보 → 산업계 수요의 시그널 기능 강화 → 인력 미스매치 완화
- SC의 인력수급 조사·인력사업 기획이 범부처적으로 전달·종합논의 될 수 있는 공식 채널(공동위) 마련 → 종합적인 관점에서 SC 역량 배양 및 산업계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에 부합하는 인력 정책 시행

< 참석자 주요발언 내용 >

- 한국SW산업협회의 조현정 회장은 'SW산업 수요를 반영한 마이스터고 설립 지원 등과 같이, 민·관이 함께 SW인력정책을 논의하는 장으로써 SC기능과 역할을 강화해나갈 것'이라고 화답
-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'산업계 수요에 부응한 현장성 있는 교육훈련과 능력기반의 고용과 처우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핵심과제로서 정부와 산업계의 가교인 SC가 이를 선도할 수 있도록 3개 부처가 벽을 열고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'고 밝혔다.
-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히 '최근 제조업과 IT·서비스 융합 등 산업 패러다임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에서 인력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'고 당부 🗣️